아산신문



아산신문 QR코드

【주간】 제2호 2019년 6월 18일 ~ 6월 24일 www.assinmun.kr 아산의 등불 | 2017년 7월 27일 창간

곡교천을 아산시 대표 관광 자원으로 육성

곡교천변복합체육여가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체육, 문화, 여가를 원스톱으로 향유 가능 환경 조성



아산시가 곡교천을 시민친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속박물관, 은행나무길 등 주변 자원을 연계해 아산시 대표 관광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곡교천변복합체육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곡교천에 체육, 문화, 여가를 원스톱으로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하천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곡교천은 그동안 체육시설, 야영장 등 단편적 개발로 인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곡교천 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주여건을 강화해 기업과 인구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곡교천변 복합체육여가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전문가 자문단, 주민, 관련 부서 간 회의를 거쳐 올해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열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첨단산업도시로서 발전을 거듭해온 아산시는 이제 그 성과를 시민의 행복으로 돌려드리고자 곡교천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게 됐다"며 "곡교천을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관광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매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도시, 더 큰 아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Index



2 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아산서도 2회 2천7백만 원 지급
한국당 충남도당 "개념 연예인의 1분당 강연료는 18만원, 1회 강연료는 대학강사 연봉을 웃돈다"



3 당선무효형 받은 장기승 의원...신상발언 통해 심경 밝혀
"한걸음 뒤로 물러나 인생의 소중함 느끼는 시간을 갖겠다"



7 제100회 전국체전 하키종목, 아산 유치 확정!
국제적 수준 경기장 조성 박차



11 공동체 문화 선도하는 "음봉 더샵 레이크시티 2차 아파트"
세대주 평균 나이 39세의 젊은 아파트...총13개동 796세대 2400여명 거주



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아산서도 2회 2천7백만 원 지급

한국당 충남도당 "개념 연예인의 1분당 강연료는 18만원, 1회 강연료는 대학강사 연봉을 웃돈다"

고액 강의료 논란을 빚고 있는 김제동 씨에게 지난 2017년 아산에서도 2차례에 걸쳐 2천7백만 원의 행사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 A의원에 따르면 "아산에서 지난 17년 4.28 행사 당시 '김제동의 토크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온양온천역에서 90분 간 진행했다. 그때의 강연료는 1천 5백 만원이었다"고 "이후 17년 아산시 어린이집 단체가 주최하는 보육인대회에서 김제동 씨 강의료로 114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16년 570만원의 지원금 보다 2배 오른 114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그중 강연료를 맞추기 위해 부족한 보조금을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서 60만 원을 자부담하기도 했다.

앞서 대전시 대덕구는 오는 15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대덕구와 김제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덕구가 김제동 강연료료 90분에 1550만원을 책정했다는 보도가 나와 퍼지면서 고액 강연료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결국 대덕구는 해당 강연을 취소했다.



논산시의 경우 2년 전 '참여민주주의 실현 2017 타운홀 미팅' 때 김제동씨의 90분 강연에 16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4년 행사에서도 1천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김제동 90분 강연에 1620만원을 지급한 시민혈세 돈잔치 강연에 대해 황명선 논산시장은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개념 연예인의 1분당 강연료는 18만원(최저시급은 1분당 140원), 1회 강연료는 대학강사 연봉을 웃돈다"며 "충남 논산시가 2년 전 '참여민주주의 실현 2017 타운홀 미팅' 때 김제동 씨의 90분 강연에 162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1.4% 수준으로 김제동 씨 강연을 취소한 대전 대덕구청의 16.06%보다 열악하다"며 "인건비 감당도 버거운 논산시가 시예산으로, 문화 예술 기회 제공 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입맛에 맞는 자파 인사를 살뜰히 챙기고 선심성 이벤트를 통해 시장 얼굴 내세우기, 생색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시민혈세로 고액 강연료를 지불하는 논산시를 힐난했다.

이에대해 아산시민 A씨는 " 연예계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강사료 갭차이가 너무 심하다. 전문지식을 가진 일반 강사는 30만원 선, 장관급도 1시간 강연에 50만원 정도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금액이 너무 소박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제동 씨 행사 섭외는 그 당시 아산문화재단 팀장이었던 B팀장이 해당 관계자들과의 친분으로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자 기자

강훈식 의원, 아산 신도시 108만평 규모 개발 재추진

'전국 최고 명품신도시 건설로 아산시 재도약 계기 마련'



아산 배방탕정지구 해제지역 내 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 재추진 될 전망이다.

강훈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출한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요청을 국토부가 수용한다는 내용의 회신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산시도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요청 공문을 발송·시행한다.

LH가 신청한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까지 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에 108만평 12,535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소특구 배후단지로 검토되고 있는 R&D 집적지구 아산지역 24.7만평 규모를 연계하면 130만평이상의 도시개발이 추진된다.

강 의원은 "해제지역내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주도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며 환영하며, "첫 발을 내디딘 신도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LH와 아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산시 발전의 재도약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도 "LH가 자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며 "올해말까지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내년말에 개발계획을 승인받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한미영 기자

천안 · 아산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한다

충남도, 공모 제안서 제출하며 유치전 본격 돌입

충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며 '스타트업 파크' 유치전에 본격 돌입했다.

스타트업 파크는 개방형 혁신창업 거점으로,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 등이 열린 공간에서 교류·협력하는 공간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 대비해 KTX 천안아산역 유휴 공간을 활용한 'C-Station' 사업 계획을 세우고, TF팀을 꾸려 응모를 준비했다.

또 공모 선정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과 기업, 연구소, 유관기관 등 57곳을 협력 기관으로 끌어들였다.

기차역을 창업 공간으로 개조한 프랑스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 F)에서 착안한 C-Station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창업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위치 및 규모는 천안아산역 유휴공간 16만 7438㎡로, 도는 국·도비를 포함해 총 32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단계별 조성 계획을 보면, 도는 우선 1단계로 241억여 원을 투입해 2·3층 2만 2066㎡에 스타트업·커뮤니티·크리에이터·플레이존 등 4개 구역을 조성한다.

4개 구역에는 창업 입주실, 캠퍼스 플랫폼, 코워킹스페이스, 글로벌 스타트업 입주 사무실, 전문 제작업체 입주 공간, 디자인센터, 교육실, 다목적 문화시설, 헬스케어 시설, 창업카페,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2단계 스타트업촌 조성은 60억여 원을 투입해 역사 좌우 교량 내에 블록형 창업공간 144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3단계는 스타트업 거리 및 광장 조성으로, 19억여 원을 투자해 교량 주변 구역 및 역사 인근 광장을 정비해 입주 기업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천안아산역이 개방성과 집적화, 지속가능성 등 중기부의 스타트업 파크 선정 기준에 가장 부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반경 10㎞ 내에 14개 대학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31개 유관기관이 위치해 있고, 도서관과 체육관, 아파트 등 정주여건도 탁월해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천안아산역은 중기부 선정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입지"라며 "충남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이번 공모에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다음 달 초 1차 서류 평가를 통해 6개 안팎의 지역을 선정한 뒤, 2차 현장 확인 평가와 3차 발표 평가를 통해 6월 말 최종 1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승철 기자

이명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으로 합리적인 정책 수립 기대"



이명수 의원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동안 건정심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 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영 기자

아산시의회,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개회…21일간 일정

2019 행정사무감사, 조례안건 등 처리예정

아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8일간),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3일간),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 17여건 등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이날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맹의석·홍성표 의원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조미경·홍성표·황재만·전남수·현인배·심상복·김수영의원 7인 구성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 제안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의 건 △'아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위원 추천으로 맹의석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장기승의원은 의사일정 전 신상발언을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 번 기회를 갖고자 하지만, 어쩌면 마지막 의정발언일 수 있다"며 "동료의원과 공직자에게 아산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아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수 부의장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아산시 어린이집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질서 확립을 주문한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에 대한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과,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 대비하여 가뭄과 집중호우에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감으로 연초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자 기자

김미영 의원, '다자녀가정 기준과 지원근거 마련'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명변경과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 마련안이 지난 13일,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추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관한사항 신설 △다자녀 가정의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고 명시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미영의원은 "제각각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2자녀로 규정함으로 진지하고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아산시만의 특색있는 정책들을 더욱 발굴하여 저출산 위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다음달 2일 제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영 기자

당선무효형 받은 장기승 의원...신상발언 통해 심경 밝혀

"한걸음 뒤로 물러나 인생의 소중함 느끼는 시간을 갖겠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을 받게 된 장기승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지난 12일, 제21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장 의원은 "정치인생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며칠전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충남 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신문배달하는 분에게 의뢰해 아산지역에 배포했는데 편입예정지역에 배표된 것만을 콕 집어내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했다"며 "변호인은 의정보고서 배포 위반일지언정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제 탓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보다 더 정확한 판단은 시민과 국민이 할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벌금 100만 원이상의 형은 정치인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산시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도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아산시의원들은 아산발전과 시민이 평안한 일이라면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의정 생활을 하길" 당부하며 "공직자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충실히 수행할 때 만족감과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시민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의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상고는 하지만 아산시의원으로 퇴장을 준비하려 한다"며 "한걸음 뒤로 물러나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한미영 기자

김희영 의원,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고유의 식품으로 전통식품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전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아산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관한 사항 △전통식품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 여비 관한 사항 △지원범위, 대상 신청, 사업결정,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 담지 못한 세부적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으로 전통식품 산업의 성장·발전에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김희영의원은 "전통식품을 발굴·육성해 농수산물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춰야 하며, 우리도 서둘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지닌 농수산물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통식품은 결코 사양되지 않은 중요한 농업 산업으로 농업소득 증대와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다음달 7월2일 제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영 기자

아산시의회,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모임' 결성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목표로'

아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의원연구단체인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모임'을 결성해 발대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활동하는 이번 연구모임은 조미경 의원을 대표로 홍성표, 김미영, 이상덕, 김수영, 안정근의원 등 6명의 초선의원과,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교수, 이은아 변호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연구 활동기간을 갖는다.

아산시 현행조례의 법률적 기틀 속에서 적합성과 시민들의 권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법제처와 자치법규의 일원화된 조례분석과 분야별 우수조례 사례연구,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연구방향 설정,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자치법규 개정 등 분야별 세부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미경 연구모임 대표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조례연구를 위해 정례적 연구모임 실시 등 지속적인 활동과, 전문가 자문 및 의원간담회를 통해 조례전반에 걸친 연구로 하반기 연구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2019 충남 다(多)가족 다(多)문화 페스티벌' 성료



충남도가 도내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8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2019 충남 다(多)가족 다(多)문화 페스티벌'은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과 소통과 나눔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도민의 존엄성과 문화 다양성,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충남다문화인권위원단의 '인권 캠페인'과 연계해 개최됐다.

이날 '함께하는 가족, 더 행복한 충남'을 주제로 열린 페스티벌에는 도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보훈가족, 일반가족 등 3000여 명이 참가했다.

1부 기념식에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및 건강가정 문화확산 유공자 표창과 함께 도민 220명이 참여하는 '도민 합창 퍼포먼스'와 '세계의상페스티벌'로 화합의 문을 열었다.

이어지는 2부 화합 한마당에서는 도내 가족 9개 팀이 공연을 펼쳤고, 3부에서는 전국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7개국 17개 팀이 참가하는 '다(多)가족 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해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다.

또 이날 부대행사로는 저출산·미세먼지 및 가족체험 등 37개 부스와 5개 음식부스가 운영됐으며, 야외무대에서는 키다리 피에로, 버블공연, 마술공연 등이 진행돼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삶의 무대가 무한히 확장되는 현 시대에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나누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사람과 문화와 삶이 어우러지며 가족과 함께하는 더 행복한 충남도를 만드는 데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출범식 개최

청와대 분수광장서 15개 농업인단체 참여



농업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농정의 대안 마련과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난달 창립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 이하 농단연)이 지난 5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농단연에 정회원으로 참여한 15개 농업인단체는 각 단체장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업인단체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농단연의 활동 방향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는 고문삼 상임대표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출범 선언문 낭독, 정책건의문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이날 농단연의 출범 배경을 밝히고 △농정공약의 조속한 실천 △공익형 직불제 확충과 쌀목표 가격 조속 결정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내실화 촉구 △후계농업인력 및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실제적 대책 촉구 등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10대 정책 요구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고문삼 상임대표는 10대 정책 건의문을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전달하면서 정부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지난달 16일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 구성과 함께 규약을 제정하는 등 기본적인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참여단체(15개)
△고려인삼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4-H본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가나다순)

이현자 기자

음식점 위생등급제, 휴게음식점 · 제과점까지 확대 시행!

'위생수준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

아산시는 올해부터 위생등급제를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본격 확대 추진한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 중 희망하는 위생 등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아산시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객석, 조리장, 식품취급 시설, 식재료, 화장실 등 위생관련사항을 평가해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지정한다.

특히, 시는 지정율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 충청남도와 연계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취약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신청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위생등급제 홍보와 지원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이 교부되며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식품진흥기금 융자 개·보수 지원, 위생물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내 7개 업소가 위생등급을 지정 받았으며, 14개 업소가 컨설팅 진행 중에 있다" 면서 "앞으로 위생등급제를 점차 확대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로 외식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생등급제 상담 및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위생과(☎041-540-2165)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옥 기자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집중단속

6월 한 달간,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 집중단속

아산시는 6월 한 달간 여객,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사람 통행량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과 아파트단지 주변지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해 대형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과 소음·매연 등으로부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0시부터 오전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적발된 차량은'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30만원) 처분을 받고 타 지역 차량은 관할관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차고지에 주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초사동 일원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밤샘주차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조인옥 기자

전기지게차 스마트정비인력 양성과정 무료교육생 모집

아산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고용보험미가입자)대상

아산시가 오는 22일까지 '전기지게차 스마트 정비인력 양성과정' 무료교육생을 모집한다.

시는 산업현장에서 전기지게차가 대폭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기지게차 정비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해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와 연계해 이번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전기지게차 기초이론교육, 전기지게차 실습교육, 취업소양 교육 등이며 교육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까지, 주 5일, 1일 6~8시간이다.

교육대상은 아산시민 및 아산소재 학교 졸업자로 아산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고용보험미가입자)이다.

특히, 학력, 성별 및 나이제한이 없으며 시는 아산시 소재 기업에 취업이 가능한 교육생을 우선 선발 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교육신청은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홈페이지(http://www.kopo.ac.kr/asan) 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6월 22일까지 이메일(kopo.asan.edu@gmail.com)또는 팩스(041-532-9013)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환 사회적경제과장은 "아산에 전기지게차 정비인력의 수요가 많은 만큼 취업의지가 확고한 청년과 신중년들이 이번 무료교육을 좋은 기회로 삼아 많은 참여를 바라며 한국폴리텍대학과 관내 기업과의 협조로 취업연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받는다

충남주소지 둔 도민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 혜택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가입되어 누구나 자연·사회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남도민은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양승조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민의 생활안정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도민의 편의를 위해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서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내년에는 도비 8억 8000만원을 지원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해 충남도민의 생활 안정망을 강화하고, 도시, 농촌, 해안 등 다양한 환경여건에 따라 시군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안전 사고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의 가장 가까운 진정한 친구는 충남도라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을 비롯해 새롭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충남도, 전국 최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조직운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충남도가 전국최초로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규정'을 제정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정 없이 내부방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항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정해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총수와 부서별 직급 및 인원을 명시해 인력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인력배치 승인절차와 배치가능 분야를 명확히 해 관련 제도가 책임성 있게 활용되도록 했다.

안호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규정으로 인력운영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돼 조직운영의 투명·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더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충남도에는 27명이 재직 중이다.

박승철 기자

아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2호' 개소식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안전확보

아산시는 지난 11일, 배방읍 구령2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2호' 개소식을 가졌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같은 생활근거지의 독거노인들에게 공동 취사와 숙박을 지원해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구령2리 노인회관을 개·보수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개소했으며 어르신 10여명이 이용할 예정으로 급식비, 제세공과금, 난낭비 등 공동생활홈 운영비로 월 42만 5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공동생활홈 이용 신청자 평균 연령이 83세로 서로 말벗 친구가 돼 우울감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독거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이 되도록 공동생활홈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배방읍 구령1리 공동생활홈 1호를 개소해 현재 7명이 이용 중이며 이용자 어르신과 외지 자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자 기자

아산시, '경로당 이력관리제로 '투명 운영'

경로당 운영회계 및 비품관리 지도점검

아산시가 경로당 이력관리제 시행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경로당 비품·개보수 및 보조금의 철저한 지원관리로 경로당 운영 투명화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경로당 이력관리제를 마련했다.

현재 경로당 5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현지 확인과 사안별 분류를 통해 지난해 45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6억원 가량의 비품 및 개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52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8억원의 비품, 개보수가 지원 예정



이다.

시는 경로당 이력관리제로 회계처리 적정여부, 경로당 시설의 각종 비품·시설보수 현황, 물품 폐기상태 등 관리규정 이행 여부, 연도별 경로당 비품지원, 기능보강의 지원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시는 물품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금전출납부 등 사용 안내와 회계교육, 경로당 비품·개보수 지원 및 시설 이용과 경로당 비품 사용 관리 안내를 위해 경로당 분회장 및 회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집합교육을 2회 진행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경로당 이력관리제를 통한 체계적인 경로당 지원 체계 정착과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안내를 통해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경로당이 쾌적하고 편안한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주)씨에이미디어 그룹
"충남지역의 언론문화를 선도합니다"
천안신문 아산신문 공주일보 금산일보 NAS논산일보
당진일보 대전저널 보령일보 서산일보 서천일보
세종온라인뉴스 예산일보 청양일보 태안일보 홍성일보
대표번호 1588-4895 / 기사제보 041-556-1212

충남다사랑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 돕는다

둔포면 염작리에 설립, 오는 9월 1일 개교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돕는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고등학교과정인 충남다사랑학교가 오는 9월 1일 개교한다.

국내에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다양한 공립 대안학교가 있지만, 가정적 위기학생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충남교육청이 최초이다.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옛 염작초 부지에 들어서는 충남다사랑학교는 3학급 45명 규모의 위(Wee) 스쿨 고등학교와 부설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로 구성된다.

충남다사랑학교 재학생은 최장 3년간 재학할 수 있으며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에서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2주에서 3주간 기숙하면서 집중치유에 임하고 학교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학생들을 위해 위스쿨고에는 상담사와 임상심리사를 포함해 교직원 26명,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에는 전문상담사 12명, 주말사감 6명 등 교직원 18명이 배치된다.

학교에서는 삶과 세상을 성찰하는 힘을 기르는 치유단계, 스스로 다함께 삶의 주인이 되는 배움 단계, 행복한 인생설계를 즐겁게 실천하는 인턴십 단계를 통해 치유와 돌봄은 물론 교육활동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18세 청소년 중 약 5만6000여 명이 가정 밖 청소년이 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가정문제로 인한 가출을 전후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학업이 중단되거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 정서,인지,행동 문제를 경험한다고 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6년도부터 가정폭력 및 가족 간 갈등으로 가정적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오랜 회의와 자문을 거쳐 기숙형 공립대안학교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공정율은 45%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가정적 문제로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착오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모든 교직원이 개교 준비를 철저히 해 가정 위기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미영 기자

아산공수초등학교 개교식 갖고 '새출발 다짐'

"배움으로 희망찬 미래 여는 행복한 학교될 터"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위치한 아산공수초등학교가 개교식을 갖고 새출발을 다짐했다.

지난 4일, 개최된 개교식에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조기성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유병훈 아산부시장, 강훈식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과 여러 도의원, 시의원, 교육관계자, 지역사회인사,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학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본교 교원으로 구성된 밴드의 열정적인 공연과 아산공수초 병설유치원 산들반의 깜찍한 율동으로 시작된 식전 공연에 이어 1부에서는 교기 전수, 아산공수초 교육가족 인사, 교육감 치사, 내빈 축사가 이어졌고, 개교기념 영상을 시청하며 개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행사로 야외에서 개교테이프 커팅, 교훈탑 제막과 기념 촬영을 하였고, 교내를 둘러본 후 축하연회로 축하떡 자르기 등 급식실에서 내빈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개교식을 축하하는 열기가 더해졌다.

이영철 아산공수초 교장은 교육가족 인사에서 "오늘 개교식을 통해 아산공수초등학교의 개교를 널리 알리고 교육가족 모두가 학교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꿈을 크게, 마음을 넓게, 세상을 밝게'라는 교훈처럼 성장하도록 꿈과 배움으로 희망찬 미래를 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산공수초등학교는 지난 3월 1일 힘찬 첫발을 내디뎌 3월 4일 특수학급 포함 초등학교 15학급, 유치원 5학급 400여명의 학생들이 시업식과 입학식을 갖고 현재까지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이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모아 행복한 학교, 핵심인재 키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현자 기자

'2019 권역별 대입설명회' 아산에서 개최

지난 4개 권역 대입설명회에 연인원 2200여 명 참가

변화된 대입전형에 따른 대입지원전략을 제공하는 '2019 권역별 교육공동체 대입설명회'가 지난 15일 아산에서 개최됐다.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은 논산, 내포, 천안, 서산, 아산의 5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4월부터 대입설명회를 진행했다. 남부(논산), 내포, 천안, 서산 설명회에는 220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했으며,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마지막 대입설명회는 400여 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실시된 4개 권역 대입설명회에 참석한 다수의 고3 학생과 학부모는 충남교육청이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해 대입지원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후한 점수를 매겼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역시 자기주도적인 공부와 능동적인 학교생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 많았다.

지난 15일 아산지역 대입설명회는 1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로 충남진학교육지원단에서 활동하는 공주사대부고 김상배 교사가 '대입전형의 이해와 수시모집 지원전략' 특강을, 2부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권위자인 서울 광영고 김용택 교사가 '자기소개서 작성의 이해'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아산은 물론 다른 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참석이 가능하다.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 고미영 원장은 "4개 권역 대입설명회에 참석해 모니터링 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유익한 설명회였다"며 "현재 80개 중·고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교육공동체 진로진학토론마당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자녀의 고입, 대입, 진로 선택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충남교육청, 초등학교 전환학기제 17곳 운영 '호평'

'초등학교 전환학기제'로 자유학년제 이해도 높인다

충남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17곳에서 전환학기제(자유학기제)를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환 자유학기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희망하는 학기 동안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 활동 등 자유학기제 활동을 운영한다. 소규모 학교는 다른 학년과 연합하거나 인근 학교와 공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13개교 전환학기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자료집을 발간했고, 올해는 17개교를 선정해 담당자 사전연수를 마치며 본격적인 전환학기제 사업 운영에 접어들었다.

올해 전환학기제 운영 초등학교 중 11개 학교는 지난해에도 전환학기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의 사전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자유학년제의 이해도와 학부모, 학교 공동체의 만족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올해도 사업을 신청한 것이다.

올해로 두 번째 전환학기제 운영에 들어간 천안성성초등학교 지혜리 교사는 "지난해 처음 전환학기제를 운영하며 반응이 무척 좋았다"며 "중학교 공부에 대한 불안함과 진로 고민으로 혼란스럽던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재능을 후배,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충남형 자유학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초등학교 전환학기부터 중1 자유학년, 중2,3학년 연계학기 더 나아가 고등학교의 포스트(Post)-자유학기제까지 연계 운영하며 공교육 전반의 교육혁신을 이끌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박승철 기자

2019 천안아산 생활체육 교류전 개최

생활체육 교류 통해 양 도시 상생협력



아산시와 천안시의 생활체육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8일,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2019 천안아산 생활체육 교류전 '이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테니스, 볼링, 족구, 파크골프, 줄다리기 등 총 5개 종목에 250여명의 아산시 선수와 임원이 출전했으며, 유관순체육관, 종합운동장, 도솔공원 등에서 경기를 펼쳤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개회식 격려사에서 "아산시와 천안시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류전을 34만 아산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체육교류전이 승패를 떠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어 동반성장의 가교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천안아산 생활행정협의회 합의 이후 올해로 네 번째 교류전인 이날 행사는 양 도시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줄다리기 시합에서 오세현 아산시장과 구본영 천안시장이 서로 자리를 바꿔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자 기자

제100회 전국체전 하키종목, 아산 유치 확정!

국제적 수준 경기장 조성 박차

아산시가 오는 10월 4일~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의 하키종목을 아산에 유치키로 했다.

올해 전국체전은 서울잠실 종합운동장 등 69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이 펼쳐지며 이중 하키 남녀일반부, 남녀고등부 4개 전종목이 2016년 제96회 전국체전에 이어 3년 만에 아산 선장학선하키장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유치는 아산시, 아산시체육회, 아산시하키협회 등 관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체육정책 협조를 통한 민·관이 함께 이뤄냈으며 시는 14억원을 투입해 선장학선하키장을 7월말까지 국제적 수준으로 시설현대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체전 하키종목은 선장학선하키경기장에서 9월 2일~6일까지 5일간 사전경기, 10월 4일~10일까지 7일간 본경기가 개최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전국 최고 권위와 규모로 평가받는 제33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를 유치해 8월 8일~16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유치를 통해 숙박, 요식업 분야 등에 20억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키 메카도시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체육회와 아산시하키협회 등 유관기관과 체육정책 협조로 전국규모 대회가 지속적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100회 전국체전과 제33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를 기반으로 2020년 하계 동경올림픽과 연계해 국내외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장소로 유치할 계획이다.

한미영 기자

예술의 전당 우수공연,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만난다

예술의 전당 영상화사업'SAC(Seoul Art Center) on Screen'선정



아산시평생학습관이 '2109년 예술의 전당 영상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술의 전당 우수 예술 콘텐츠를 무료 상영한다.

예술의 전당은 예술공연 관람 기회가 적은 주민들을 위해 엄선된 우수공연을 영상으로 담아 상영하는 'SAC(Seoul Art Center) on Screen' 공모사업에 아산시평생학습관을 선정했다.

지난 1일 '명성황후'를 시작으로 '발레심청', '발레지젤', '뮤지컬 웃는 남자', '윤동주, 달을 쏘다' 등 총 5회에 걸쳐 대형 스크린을 통해 아산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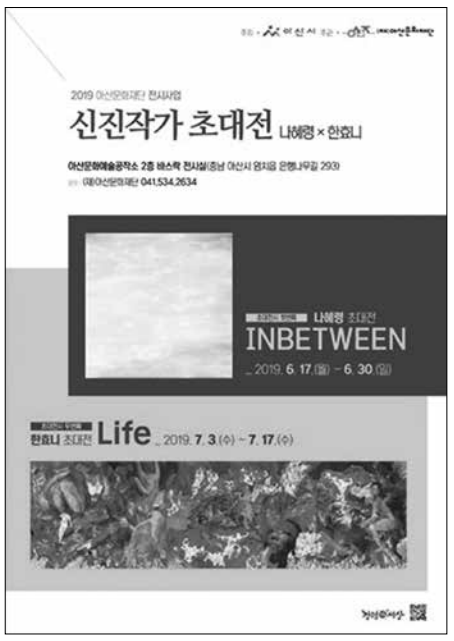
이 외에도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으로 어린이 뮤지컬 '브레맨음악대'를 시작으로 총4회가 진행되며 ▲7월, 연극 6시 퇴근 ▲9월, 정형일 발레단 공연 ▲11월, 트럼펫 재즈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아산시평생학습관(041-537-39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미영 기자

아산문화재단, 2019 신진작가 초대전·· 오는30일까지

충남지역 작가 나혜령 · 한효니 초대 전시전 개최



(재)아산문화재단은 지난 17일부터 '2019 신진작가 초대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2019 아산문화재단 신진작가 전시공모는 2018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처음 개최하는 미술분야 공모전으로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24세에서 40세의 전시 경험이 부족한 미술, 공예, 디자인 관련 예술인을 발굴해 도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전시는 2019 아산문화재단 신진작가 전시공모를 통해 선발된 충남 지역 신진작가 2인, 나혜령과 한효니의 초대전시로 진행된다.

1차 전시는 나혜령 초대전으로 30일까지 아산문화재단(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93) 2층 바스락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2차 전시인 한효니 초대전은 다음달 3일부터 17일까지 아산문화재단 1층 책놀이터에서 진행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전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조인옥 기자

희망 더하기 대화 '성료'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더하다'



아산시는 지난 11일 도고면·신창면·온양5동 방문을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더하기 대화'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5월 27일부터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이번 희망 더하기 대화에서는 시정 주요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민선7기 아산시 운영에 대한 비전 및 미래 성장 동력,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구체적인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오 시장은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아산 신도시 등 쟁점이 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에 갈등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안이 도출되기도 한다"며 "비약적으로 성장 중인 아산은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이럴 때일수록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번 희망 더하기 대화는 기존의 건의와 답변이라는 단순한 소통에서 벗어나, 나눔 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미담 사례를 발굴해 격려하고, 지역 특수시책 및 단체 우수활동 내역을 발표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다.

이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참 모델로, 앞으로 이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오세현 아산시장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주민 요구에는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무엇보다도 주민 안전에 관한 건의사항은 최우선 순위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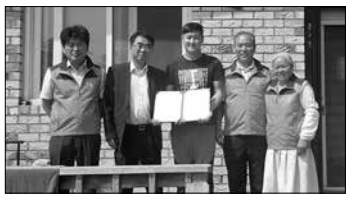
시는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한 사업부터 예산 편성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희망 더하기 대화를 통해서 아산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지혜를 더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아산시민의 아산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바탕으로 50만이 살아도 넉넉하고 쾌적한 시민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더 큰 아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옥 기자

부활농장 이경원 대표, 송악면 행복키움과 협약 체결

매월 계란 10판 지원 약속



음봉면 아산시 음봉면에 위치한 부활농장 이경원 대표가 지난 13일,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과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후원협약은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 유금안 단원(상전대표)의 적극적인 복지자원 발굴로 이뤄졌다. 후원협약을 맺은 부활농장은 매월 후원물품(계란 10판)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후원물품은 행복키움추진단 저소득 독거노인 영양지원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부활농장 이경원 대표는 "평소 행복키움추진단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작지만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 송창운 대표는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에 후원을 해주신 부활농장 이경원님께 감사드린다. 지원해주신 후원물품은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지원에 많은 복지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새마을회, 마을 도로변 꽃길조성

회원 20여 명 참여해 여름꽃 식재



온양6동 아산시 온양6동 새마을협의회가 도시녹화를 위한 꽃길 조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온양6동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11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좌부교 버스정류장과 읍내사거리 도로변 화단에 일일초와 메리골드 등 형형색색의 여름꽃을 식재했다.

회원들은 무더운 시간을 피해 오전 시간을 이용해 도로변을 정비했으며 여름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껏 작업을 완료했다.

이날 식재한 일일초와 메리골드는 아산시 백암리 양묘장과 온양6동사무소에서 꽃묘를 제공한 것으로서, 버스정류장 이용객들과 통행하는 시민에게 아름다운 정취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우 협의회장은 "인근 주민들이 출근길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도록 농사일로 바쁘지만 회원들이 시간을 내 꽃길 조성에 나서게 됐다. 꽃길을 잘 관리해 아름답고 다시 찾고 싶은 온양6동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인적자원망 특화사업, 저소득층 여름김치 나눔사업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김치인가, 사랑인가?'



음봉면 음봉면 인적자원망은 지난 14일, 음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절 특화사업인 여름김치 나눔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한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김치인가, 사랑인가?'사업은 음봉면 인적자원망의 계절특화사업이자 여름나기 지원사업으로 행복키움추진단 및 복지 이·반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정 50세대에 여름김치 20kg을 지원했다.

송재영 음봉면 행복키움추진단장은 "마을마다 김장김치가 떨어진 저소득가정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 가정마다 방문하여 전달하며 이야기도 듣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최광락 음봉면장은 "인적자원망 분들과 함께 김치 나눔을 하러 다니면서 더위에 지쳤던 어르신들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 저소득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소통해 주시는 인적자원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행복키움, 밑반찬 지원 봉사 실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

온양5동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은 지난 12일, 행복키움추진단 정기회의 개최와 밑반찬지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행복한 온양5동 만들기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를 마친 후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가구 30세대를 대상으로 삼계탕, 배추겉절이, 스팸, 과일 등 메뉴로 준비한 밑반찬을 가가호호 방문해 복지모니터링과 함께 전달했다.

이정복 부단장은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밑반찬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과 장애인가구에게 건강하고 든든한 한 끼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이웃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눠가겠다"고 말했다.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강연식 단장은 "이번 봉사를 위해 애써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창구' 운영

복지상담과 물품 나눔 행사 진행



신창면 아산시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은 취약계층 400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창구'를 진행했다.

지난 4일,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정보제공과 물품나눔, 그리고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복지 상담(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 일자리 상담(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대한노인회아산시지회), 법률 상담(아산시법률홈닥터), 주거복지 상담(아산시청 주택과, 천안LH주거복지센터, LH천안권 주거복지센터), 손마사지(아산시자원봉사센터), 수지침(서금요법아산시지회), 시력검사 및 돋보기증정(다비치안경 온양역점), 의료상담(늘푸른재활전문요양병원)치매조기검진 및 건강체크 (아산시 보건소, 신창보건지소)등 다양한 상담 창구 운영으로 주민 개개인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IBK 기업은행에서 후원하고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와 행복나누미봉사단이 운영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함께해 참가 주민에게 따뜻하고 푸짐한 식사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참여한 주민들에게 아산기초푸드뱅크가 후원한 사랑의 물품을 증정하여 돌아가는 주민들의 두 손과 마음까지도 풍성한 행사로 진행됐다

서광석 단장은 "신창면 복지상담창구에 참여해주신 주민과 후원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신창면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아산시 행복키움추진단협의회, 도고 해비타트 마을 집수리봉사

민·관이 함께 화재가구 보금자리 마련에 구슬땀



도고면 아산시 행복키움추진단협의회는 도고면 금산리 해비타트 화합의 마을을 방문해 화재 피해 가구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1일, 실시된 이날 봉사는 지난 4월 20일에 화합의 마을 127동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4가구를 위한 집수리를 진행했다.

화재복구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 관이 함께 재건축비, 생계비, 심리 상담을 지원했으며, 6월말 준공을 목표로 벽 패널 고정작업, 타일제거 등 집수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해 삼성전자온양사업장은 해비타트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 23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과 실습을 가졌다.

강준구 회장은 "화재 소식을 듣고 화재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고자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 봉사의 손길이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바쁜 와중에도 봉사에 참여해주신 단장과 단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에는 546명의 행복키움추진단원이 17개 읍면동에서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에 있으며 탄탄하고 촘촘한 인적자원망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이현자 기자

배방읍,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열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소외계층 100가구에 배추김치 전달



배방읍 배방읍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지난 6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공수3리 마을회관에서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며느리봉사대 30여명의 참여로 이틀에 걸쳐 정성껏 배추김치를 담갔으며 마을 실정에 밝은 각 마을 부녀회장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김치를 전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홍담선·이연순 회장은 "며느리봉사대 회원들이 정성껏 김치를 만들어 전달할 때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고맙다고 인사해주시는 어르신들 모습을 뵈면 힘이 절로 나고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겸 배방읍장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구슬땀 흘리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복지 발전과 소외된 이웃의 희망을 위한 봉사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배방읍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고구마심기, 명절 귀성객 음료 대접, 환경정화활동, 며느리봉사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한미영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zero화' 업무협약 맺어

선진교통문화 및 바람직한 음주문화 확립 위한 논의



둔포면 둔포면 행정복지센터는 면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한 '음주운전사망사고 zero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면민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관내에 선진교통문화 및 바람직한 음주문화 확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앞으로 협약단체는 음주운전 금지 홍보활동과, 음주운전 근절 서명부 작성, 협약대리업체와의 금액할인에 대한 협약내용을 이행하게 된다.

김동윤 둔포면장은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둔포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고,'음주운전 사고 없는 둔포'가 되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윤가네 옛날통닭, 행복키움과 후원 협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온양1동 온양1동 행복키움추진단은 온천동 소재 윤가네 옛날통닭과 행복키움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일, 윤가네 옛날통닭 심정희 대표는 온양1동 행복키움기추진단에 매월 3만원의 정기후원금 지정 기탁을 약속했다.

심정희 대표는 "평소 온양1동 행복키움추진단의 다양한 나눔활동 사례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 생업으로 인해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정기 후원을 통해 행복키움지원사업에 동참하고 싶다"고 후원의 뜻을 밝혔다.

장일권 온양1동 행복키움추진단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양1동행복키움 후원자 및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행복키움 지정기탁 후원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찾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미 있게 쓰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상 온양1동장은 "행복키움추진단 후원활동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심정희 대표께 감사를 드리며, 온양1동은 지역 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송학정 강의명 대표, 송악면 행복키움과 후원협약 체결

송악면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송학정은 지난 11일,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과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후원협약은 송악면 수곡2리 박종운 이장의 적극적인 복지자원 발굴로 이루어졌다. 후원협약을 맺은 송학정은 매월 일정금액을 송악면 행복키움기금에 후원하게 되며 후원금은 행복키움추진단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송학정 강의명 대표는 "관내 복지활동에 힘써주시는 행복키움추진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산후원회, 저소득층 아동의 꿈 지원

아산 아이리더 인재 육성 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산후원회가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응원하기 위해 300만원을 후원했다.

아산후원회는 정기 후원금 이외에 회원들이 별도의 후원금을 모아 가정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열심히 생활하며 농구선수의 꿈을 꾸고 있는 농구 특기생 A아동의 소식을 듣고 후원키로 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종기 회장은 "아산의 대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가 될 아동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어 회원들과 뜻을 모아 후원하게 됐다"며 "우리의 꿈나무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로 미래를 꿈꾸고 힘내길 바라며 A아동이 앞으로 멋진 프로농구 선수가 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유병훈 아산시 부시장은 "아산시 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산 아이리더 사업으로 인재육성을 위해 후원해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음을 아동에게 전달되면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후원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아산후원자 모임 단체이며 회원들은 아산의 행복키움 지원사업 등 민관협력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아산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장학금 전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조인옥 기자

김영애 의장, '생활밀착형 복지' 추진

"현장 목소리 시책에 반영할 것"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이 취약계층에 한발 더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 의장은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어르신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려움을 직접 살피는 복지 상담을 실시했다.

평소 서류와 보고로만 접해오던 맞춤형 복지에 대해 아산시의회 의장이 나서서 현장을 방문하고 대상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질 수 있도록 복지환경 마련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안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유함으로서 서비스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장모 어르신(91세)은 "아들이 있긴 하지만 부양능력이 없어 혼자 외롭던 차에 이렇게 의장님이 직접 방문해 관심도 가져 주시고 필요한 서비스도 알려주셔서 너무 행복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영애 의장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만큼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고, 노력하는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아산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고민과 바람이 시책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NH농협 아산시지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 후원

영농폐비닐 수거지원 5,000만원 전달



NH농협 아산시지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 기탁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농경지 및 농촌환경 오염의 주원인인 영농폐기물비닐의 수거 장려를 위한 보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산시는 올해 봄부터 한국환경공단과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시행해 4월 현재 폐비닐 245톤, 농약병 17톤을 수거했으며 영농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도 등급별로 10원씩 인상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들과 각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단체 등의 자발적인 수거활동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 전년대비 30%이상 수거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성동 NH농협 아산시지부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한국SNS연합회,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개최

당진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독거노인에게 1004 그릇 짜장면 나눠



한국SNS연합회가 당진시 채송공원에서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개최해 사랑의 온정을 함께 나눴다.

2014년부터 전국을 돌며 SNS를 통해 인연을 맺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사랑의 짜장차'를 운영하는 , 한국SNS연합회는 전국을 돌며 짜장나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박성순 도자원봉사센터장, 최유호 당진시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여해 연합회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

이날 만들어진 사랑의 짜장면 1004그릇은 당진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에게 제공됐다.

박성순 도자원봉사센터장은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한국SNS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1004개의 짜장면을 나누는 의미 있는 활동에 동참하여 매우 뜻깊다"고 전하며,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꾸준히 돌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영 기자

공동체 문화 선도하는 “음봉 더샵 레이크시티 2차 아파트”

세대주 평균 나이 39세의 젊은 아파트...
총13개동 796세대 2400여명 거주

송정윤 입주자대표회장 “마을의 화목한 정서 위해 주민들이 행복한 동네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음봉면 음봉로 515-38에 위치한 더샵 레이크시티 2차아파트는 총13개동 796세대로 2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5년입주된아파트로 유치원(도보1분), 월랑초등학교(도보1분), 음봉중학교(도보3분) 품고 있으며, 주변에 위치한 월랑수변공원과 연암산은 아산시 관리공원으로서 산책로 및 트레킹코스가 있으며, 아파트 인근에는 유해환경이 전혀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친환경 숲세권 아파트이다.

단지내에는 휘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독서실, 키즈카페, 시청각실, 작은도서관등 여러 입주민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특히 야외 물놀이장이 있어 여름 주말이면 물놀이장은 무더움을 달래는 입주민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음봉 더샵 레이크시티 2차 아파트는 세대주 평균 나이 39세의 젊은 아파트답게 입주민 전용 온라인 카페를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있다. 이에 아산신문은 송정윤 입주자대표회장을 만나 이 아파트만의 특화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음봉 더샵 레이크시티 2차 아파트는 젊은 아파트답게 입주민 전용 온라인 카페를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있다.

친환경 입지에 둘러싸여 맑은 공기속에 생활하고 있지만, 시내중심지와는 멀리 떨어져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입주민들이 문화활동을 기획해 나가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가을 마다 대형기획사 수준에 버금가는 ‘포스코2차 가족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입주민 참여 축제를 성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입주민 프리마켓, 사진 콘테스트, 영화상영 등 여러가지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삼성휴대폰,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출장서비스 센터를 섭외해 단지내에서도 입주민들에게 실생활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작년에는 대진 침대 라돈 사태로 인해 라돈에 대한 공포가 전국민적으로 최대치로 올랐을때 라돈 측정기를 구비해 입주민들에게 무료 대여했으며, 불편하게 파출소등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유아 미아방지 사전 지문 등록 출장소도 마련해 영유아가 많은 우리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더샵 레이크시티 2차만의 특화된 시스템

아파트 옥상에는 태양력 발전시설, 지상,지하 주차장 LED 시공 및 야외 분리수거장 전등에 타이머를 설치해 효율적인 공동전기료 감면에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공동아파트 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직원 및 경비원과의 갑질 논란을 벗어나 서로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주도해 입주민과의 통화내용을 자동녹음(녹취)되는 프로그램을 관리사무소 모든 전화기에 도입했으며, 작년에는 아산시 사업인 “고령 아파트경비원 고용보조금” 지원 및 선정되어 입주민은 관리비 절감 하고 사회적으로 시급한 이슈인 고령자 고용해 서로 상생하는 아파트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입주민들의 작은사랑을 담아 음봉면 소재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1가족 1개 라면 기부’ 캠페인을 펼쳐 1,890개 라면을 음봉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아파트 가치 최고로 높이겠다

아파트 주변에 월랑수변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 4곳은 ‘음봉더샵나눔봉사단’을 창단해 매월 주기적으로 전 입주민들이 모여 환경미화를 실시하고 있다.

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봉사점수를 성인들에게는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가 부여돼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현재 16년 부터 단지내 작은 도서관를 운영하는 아파트내 자생단체인 늘봄북카페와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우리 아파트만의 특화된 나눔 교육 공동체인 ‘즐거운월랑이’ 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무서 정식 등록했으며, 아산시청 & 아산시교육지원청 공동사업인 ‘아산행복마을학교’에 지원 및 선정돼 올해 부터 본연의 업무인 도서관 운영 외에 별도로 현장체험학습 및 방과후 수업을 진행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유해한 담배연기를 없애자 라는 입주민들의 한 뜻으로 모아 아산시 지정 ‘금연아파트’에도 지정돼 현판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송정윤 입주자대표회장은 마을의 화목한 정서를 위해 임원들과 협조하며 주민들이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주민화합 소통 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아산시장 표창을 받기도했다.

송 회장은 “어린시절 골목길이 있는 주택가에 거주하며, 위, 아래, 옆집 가릴거 없이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살게 되니, 자연스럽게 친척 보다 더욱 친밀해졌다. 그러나 점점 현대인들은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 지면서 아파트 특성상 이웃과의 소통 부재가 되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개인주의 사회가 되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행사 및 활동을 마련해 사람 냄새가 나는 골목길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게 목표이다. 최고의 아파트가 되기 위해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영 기자



아산의 등불 아산신문
2017년 7월 27일 창간 / 발행처 (주)씨에이미디어 그룹
본 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충남, 다01368 / 일반주간 충남, 아00307 / 인터넷
발행인 김명일 편집국장 박승철
주 소 31528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9
대표번호 1588-4895 기사제보 041-534-1211
구독 · 계좌번호 농협 355-0021-6679-13
예 금 주 (주)씨에이미디어

메디컬타운

지라빌딩

임대문의 010-5423-4358

주소 :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9(모종동) | E-mail : toto19ds@hanmail.net

